



통권 제 229호

강남. 라 00943

2566
2022

11

원정 대상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6
시절 인연



살다 보면
차한 잔에 담긴 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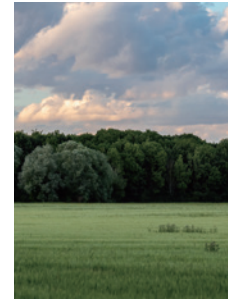
씨앗 한 알
파도치는 삶은
내가 아니다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선^善은 만법의 근본이다

선^善은 만법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선심에 당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권세와 위력도 다 당해낼 수 없고 우환질병도 선심 앞에는 다 소멸한다.
 부귀영화는 자제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느니라.



십선성취 _ 34
 소확행
 _ 남해 정사



문화재 해설 _ 55
 조선시대 책가도
 _ 위드다르마 편집실



여행여담 _ 61
 청춘의 춘천中
 _ lovely찌이

04 원정 대성사 일대기	불공 잘해라 - 제1장 시절 인연 - 김천
12 불교이야기	인과 - 화경 정사
18 살다보면	차 한 잔에 담긴 뜻 - 이옥경
24 산책	만추 - 김대곤
26 마음의 등불	가을밤의 두 가지 정감 - 이기찬
30 지혜의 트랙	신뢰할 수 있는 사회 - 방귀희
34 십선성취	소확행 - 남해 정사
37 경전에서 찾은 지혜	전신의 은원 - 불교총지중 법장원
40 죽비소리	새로운 희망을 일구자 - 김봉래
44 디딤돌	존재 양식의 삶으로 이끄는 마음챙김 명상 - 신진욱
48 가배이야기	사찰의 커피문화 - 김상미
52 차향기	녹차를 알고 마신다는 것 - 김정애
55 문화재 해설	<책가도>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다 - 위드다르마 편집실
58 붓다in미디어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 TERU 조세훈 작가
61 여행여담	청춘의 춘천中 - lovely찌이
66 서원당 안의 불교	『천수경』 지대마니보보살 - 혜광 정사
68 뜻 바꾸기	연화 - 김재동
70 씨앗 한 알	파도치는 삶은 내가 아니다 - 법상 스님
74 가로세로 만다라세상	
78 법회일정	

위드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불교총지중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안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도를 염원합니다.

다르마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별 모양의 돌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저와 결혼해 주신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청년이 얼마나 성실하고
끈기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 강변의 자갈 중에 별 모양으로 생긴
돌을 하나 찾아와 주세요.”

젊은이는 그날부터 강변에서 별 모양의
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돌을 다시 찾아보지 않도록
한 번 확인한 돌은 수심이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수천 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돌을 찾는 손끝은 그만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수없이 돌을 집어던진 어깨는 무척 아팠지만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드디어 별 모양의
돌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젊은이는 크게 소리치며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했던 습관처럼 반복했던 행동으로
돌을 강으로 던지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는 낙담했지만,
여인은 그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는 젊은이에게 감동한 여인은
젊은이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밴 습관은
간혹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올바른 습관은
분명 어디에선가 지켜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응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 따뜻한 하루의 <따뜻한 감성편지 2022년 9월 23일 자>

불공 잘해라 제1장 시절 인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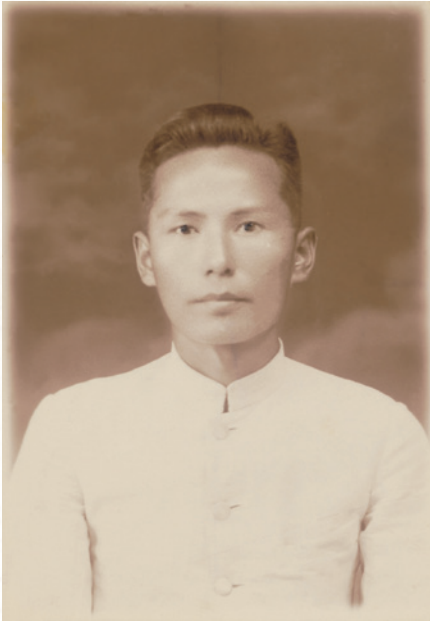
김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인도철학과를 졸업
저서 '시대를 이끈 창조자'
'인생탈출-태허 홍선 평전' 등



원정 대성사는 경전의 편찬과 역경을 통해 한국불교에 밀교를 처음으로 알렸으며, 1972년 한국의 밀교 대표 종단 불교총지종을 창종했습니다. 교상(敎相)과 사상(思想)면에서 완벽한 체계를 갖춘 정통밀교의 확립에 노력하면서 '즉신성불(卽身成佛)'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기치로 밀교의 대중화에 진력했습니다. 2021년 창종 50년을 기념하여 출판된 원정 대성사의 일대기 '불공 잘해라'에 담긴 대성사의 삶과 가르침을 위드다르마에서 특별연재로 소개합니다.

6화 - 귀국



1940년 초반 30대 원정 대성사

달도 차면 기울고, 붉은 꽃은 바람 앞에 떨어질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일본 제국주의는 가득 차올랐다가 기울어가는 시간을 맞았다. 제국의 영토가 점점 넓어지고 전선이 확장될수록 승리의 기쁨보다 패망의 두려움이 더 짙어갔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급습으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은 일본이

그리던 방향과는 크게 어긋나기 시작했다.

전선은 팽창되고 일본군은 광기에 가까운 만행을 곳곳에서 저질렀다. 중국 난징 대학살과 관동군 731부대의 생체 실험과 학살. 싱가포르의 학살과 베트남의 식량 강탈로 인한 대규모 아사 사태 등. 대성사는 단파방송을 통해 이런 소식들을 생생히 듣고 있었다.

당시 만주지역은 각종 정치사상과 이념의 용광로였다. 러시아 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가 널리 퍼져 조선인 사이에도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반공노선은 만주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무정부주의자뿐 아니라 공화주의자, 왕정복고주의자들까지. 유물론과 유심론, 서구의 철학과 과학, 사상이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고 대성사는 그런 이념과 사상의 세례를 냉철히 경험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 종교는 대성사가 깊이 관심을 기울인 대상이었다. 종교의 심성에는 세상의 고통을 구원하고 살아서 혹은 사후에라도 낙원을 이루려는 이념이 깔려 있다. 전쟁의 참화와 일제의 악행을 지켜보면서 세상의 모순과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종교 속에서 찾게 된 것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이 시기 대성사는 각종 종교 관련 경전과 문헌을 구해 탐구하였다고 전한다.

만주족의 기본적인 신앙은 샤머니즘이다. 무당이 하늘의 뜻을 묻고 전하는 원초적인 정령신앙이 믿음의 근간을 이루고, 이는 우리 민족의 무천신앙과도 일맥상통한다. 하얼빈은 서양과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터라 개신교와 러시아 정교, 가톨릭이 터를 잡고 있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하얼빈에 유대인 거주구역이 있어서 동양에서는 보기 드물게 유대교의 활동도 활발했다.

일제의 침략으로 인해 천리교^{天理教}, 금광교^{金光教}, 어악교^{御嶽教} 등 교도^{神道} 계열 종교가 만주에 들어와 일본인 사이에서 창궐했다. 불교 또한 일본의 군승과 거류민을 따라 흘러들어와 진종^{眞宗}, 정토종^{淨土宗}, 일련종^{日蓮宗}, 진언종^{眞言宗}이 활발하게 포교와 전법을 펼치고 있었다. 비록 제국주의적인 색채를 짙게 띠고 있었지만, 하얼빈에 진출한 일본 종단들을 통해 대성사는 다양한 경전을 접하고 교리와 수행 방법을 공부할 수 있었다.

조선인들 사이에는 단군을 신앙하는 대종교^{大倣教}와 동학 계열의 천도교, 시천교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천도교에서 파생한 원종교^{元宗教}는 조선을 벗어나 만주에서 더 크게 교세를 일으키고 있었다. 만주 땅에서 종교는 때때로 어렵고 황량한 시대를 건너는 길잡이가 되기도 했고, 민족의 각성으로 항일의 불씨를 살리는 독립운동의 기반이 될 때도 있었다. 여하튼 종교의 의미와 역할이 더 크게 와 닿는 시절이 열리고 있었다. 시대의 모순을 종교

라는 방식으로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하얼빈 일대에서도 활발했다. 반면 공산주의자들의 반종교 움직임도 거세게 일어났다.

유물론을 기반으로 '종교는 사회의 해악이며 인민의 정신을 마취하는 아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종교를 미신으로 선전하고 과학의 적으로 돌리는 선동을 펼쳤다. 이런 깊은 혼돈 속에서 대성사는 과학과 종교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해나갔다. 대성사는 모친의 영향으로 불심의 심지를 갖고 있었는데, 주하현에서 정미소를 하던 시절에는 자신과 시대를 돌아보며 불교를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얼빈에서 가장 큰 사찰은 극락사^{極樂寺}(지러쓰)로 천태종 제 43대 염허법사가 1924년에 창건했다. 흑룡강성에서 가장 큰 사찰로 하얼빈 지역과 인근 불자들의 불심의 중심 역할을 해낸 곳이다. 대성사가 근무했던 하얼빈 지방법원과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 아마도 그 무렵 어떤 때 대성사는 극락사에 들러 관세음보살전에 향 하나를 피워 올리고, 후일 진리로 세상을 밝힐 발원 하나를 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만주지역은 각 종교가 포교에 전력하던 곳이었다. 기독교와 불교, 민족종교들이 새로운 기반을 닦기 위해 경쟁적으로 포교를 하고 공동체를 조직하고 있었다. 불교는 인적 조직을 만드는 데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지만, 일본 종단을 중심으로 경전을 보급하

는 문서포교가 활발했다. 특히 진종과 진언중은 참회법회와 진언 수행을 활발히 펼치고 있었다.

대성사에게 만주 하얼빈과 그 인근에서 보낸 이 시절은 과학과 종교, 사상과 실천을 탐구하고 내적인 세계를 성찰하는 인연을 지은 시기라 할 수 있다. 세상이 난세가 될수록 구세의 인연은 더 깊어지는 법이다. 제국주의의 오만과 무분별한 탐욕은 결국 패망을 향해 치달았다. 하얼빈과 주하현은 소련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다.

대성사는 단파라디오를 통해 늘 연합군의 소식을 듣고 있었다.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일본군의 선전과 달리 곳곳에서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파를 통해 전해졌다. 일본과 함께 주축국인 독일과 이탈리아는 유럽전선에서 연합군에게 밀리고 있었다. 일본군은 남방전선과 남태평양에서 미군에 의해 보급로가 차단되고 진격을 중단했다. 곳곳의 전선에서 밀리고, 힘겨운 전황은 승전보보다는 패전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왔다.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사업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게 된다. 식량 특히 쌀은 전시물자로 간주되어 엄격한 통제 대상이 되었다. 식량 배급이 실시됐고, 대성사는 주하현 미곡 배급조합을 책임지는 이사장 직책을 맡고 있었다. 잠깐 흑심을 품으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자리였지만 늘 공평무사하고 공심을 잃지 않는 자

세로 일했기에 배급을 둘러싼 불평은 생기지 않았다. 귀국할 때까지 주하현 미곡조합과 배급조합 이사장 자리를 이견 없이 맡을 수 있었다. 전쟁 상황을 예민하게 지켜보던 대성사는 만주를 떠나야 할 시간이 됐음을 알았다. 라디오 전파를 통해 전해오는 소식이 급박했기 때문이다.

‘1944년 독일군은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패배하고 밀리기 시작했다. 연합군은 로마 인근 안치오 해안에 5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켰다. 미국 공군이 독일 베를린 공습을 시작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은 결정적인 패전을 경험했다. 6월이 되자 미군과 일본군이 필리핀 인근에서 해전을 시작했고 일본군의 열세가 계속됐다. 유럽 곳곳이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대성사는 이 전쟁이 곧 일본군과 주축국의 패전으로 끝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 부부는 앞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지고, 조선이 해방될 날이 곧 올 것이요.” 금강관이 되물었다.

“일본이 계속 전쟁에서 이긴다고 합니다.”

“그건 그들의 거짓 선전이요. 곳곳의 전투에서 지고 있고 전쟁은 곧 끝나게 될 것이요. 특히 이 지역에 소련군이 밀려오면 돌이

킬 수 없는 참극이 일어날 수도 있소.”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이곳 일을 정리하고 밀양으로 돌아갑시다.”

“정미소와 조합일은 어떻게 하시려고……?”

“전세가 기울고 있다는 것을 주변에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조합일은 후임자를 찾도록 했소.”

가족의 안전에 비하면 재산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전황이 돌아가는 소식을 대충 전하고 각자 처지에 따라 상황 파악을 잘 하라 당부했다. 정미소 지분은 투자한 인척에게 넘겼다. 그에게도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정리하라는 당부를 남겼다.

북만주의 4월은 춥다. 겨울이 채 가지 않고 시베리아의 삭풍이 날카롭게 대지를 가르다. 봄이 곧 오리라 믿지만 옷깃을 여민 채 길을 걸어야 한다.

1944년 4월 20일. 대성사는 가족과 함께 봄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귀국했다. 귀국 직후인 5월 17일부터 대성사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경력을 이어 군 서기로 근무할 수 있었다. 근무 부서는 적십자사 경남위원회. 경남적십자사는 당시 조선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던 곳이었다. 1944년을 기준으로 조선 전역의 적십자 지부 중에서 가장 많은 회원이 가입된 곳이 경

남위원회였다.

군 서기 신분이지만 강력히 청원해서 공출이나 징용 동원과 거리가 먼 인도적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업무를 맡았다. 적십자사가 주로 하는 업무는 홍수를 비롯한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구호 활동을 벌이고 의료봉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다. 대성사가 세상을 위해 자신의 원력을 쓸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었다.

전쟁의 급박한 분위기는 밀양이라고 피해갈 수 없어 일제는 평야인 상남 들판에 활주로를 만들고 미군 폭격을 피하고자 종남산 주변에 비행기 격납고를 만들었다. 평화의 들녘은 당장 전쟁의 최전방 전선으로 변했다.

농부들도 호미 대신 삽과 곡괭이를 들고 건설 현장의 인부로 끌려가 일해야 했다. 미군의 진격에 대비해 군용 시설을 밀양 곳곳에 건설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아붙여 지었던 시설물들이 완성되어 제대로 사용되기 전에 일본이 패망한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 됐다.

인과^{因果}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보디미트라 회장

불교도들은 누구나 인과^{因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인과는 인연과 보^{因果報}의 준말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것이 인과라는 말의 뜻입니다. 인과를 부정한다면 그는 불교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자들은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과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시 등의 좋은 인을 만들어서 좋은 과인 복을 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선인낙과, 악인고과^{善人樂果, 惡人苦果}라는 말입니다. 좋은 인을 만들면 기쁜 결과가 생기고 나쁜 인을 지어 놓으면 괴로운 결과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인선과, 악인악과^{善人善果, 惡人惡果}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과 자체에는 착하고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는 그저 인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인낙과, 악인고과’라고 해야 바른 말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믿고 신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인과를 무시한 기적도 일어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자기가 지은 것에 따라서 자기가 과보를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항상 선한 인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을 자작자수^{自作自受}라



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인과라는 것이 정말 있거나 할 까?’ 라고 의심을 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렵게 살아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만 골라 하는 것 같은데도 평평거리며 살고 있으니 도대체 인과라는 것이 정말 있기는 있는지 의심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의 뺨을 한 대 때렸더니 조금 있다가 다른 누군가가 와서 나의 뺨을 한 대 때린다면 ‘흠, 이것이 인과로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가 누구에게 돈 백만원을 좋은 일에 쓰라고 줬더니 다른 누군가가 금방 나에게 백만원을 가져다준다면 ‘인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인색하고 노랭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돈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고 욕심이 적은 사람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인격도 안되고 실력도 안되고 뻔뻔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앉아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게 치여서 울분을 삭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사람들은 인과를 믿지 않게 됩니다. ‘인과라는 건 없어. 그냥 나 편리한 대로 살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일도 과보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고 맙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과를 무시하고 욕심이 나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인과라는 것을 믿는다면 겁이 나서도 나쁜 일은 절대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과의 진리를 무시하고 여전히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의 진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과라는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과라는 말은 인연과보(因緣果報)라는 말의 준말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인과를 말할 때 잘 잊어버리는 것이 ‘연(緣)’이라는 말입니다. 인이 직접 원인이라면 연은 간접 원인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호박씨를 밭에 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같은 호박씨를 심어도(정확하게는 비슷한 호박씨를 심어도) 어떤 것은 큰 호박이 되고 어떤 것은 작게 열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것은 싹도 못나고 썩어버리기도 합니다. 같은 호박씨를 심어도 거름이 잘 주어졌는지 햇빛이 잘 들었는지 물은 잘 받아먹었는지에 따라서 호박의 크기와 질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벌레나 새가 호박씨를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호박씨가 직접 원인인 ‘인’이라면 거름이나 햇빛, 수분 등의 간접 원인이 호박의 상태를 결정하는 ‘과’가 됩니다.

세상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이 주어져도 거기에 따른 연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기도 하고 천천히 나타나기도 하며 그 나타나는 모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과의 바른 모습을 잘 살피지 못하고 인과에 대해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만사수연(萬事隨緣)’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좋은 인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연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좋은 연을 만나 훌륭한 학자나 발명가가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연을 만나 사기꾼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좋은 친구를 만나느냐 나쁜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진로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자들이 절에 나와서 착한 도반들과 어울려 법담을 나누며 서로 다독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복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좋은 연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인과의 이치가 잘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사의 불공평을 바라보면서 잠시 인과의 진리를 잊어버린 채 나쁜 생각이 날 때는 <담마빠다>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음 구절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자도 기쁨을 맛본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으면
악업의 과보에 괴로워한다(119)

선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선한 이도 괴로움을 겪는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으면
선업의 결과에 즐거워한다(120)

차 한 잔에 담긴 뜻

이옥경

수필가 · 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강릉의 가을은 커피 향과 함께 깊어간다. 강릉커피축제 한마당이 펼쳐져야 아, 가을이구나 하는 실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람객 50만여 명이라는 기록에 걸맞게 강릉커피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0여 축제 중 브랜드 평판 2위에 오르면서 커피의 위상을 단순한 음료가 아닌 문화로 승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열네 번째인 올해도 강릉을 비롯한 전국 유명 커피업체들이 참가하는 커피 무료 시음행사, 커피 명인들의 노하우를 듣는 세미나를 비롯해 로스팅, 핸드드립, 라테아트 등 각 분야 최고를 뽑는 바리스타 경연 대회, 온·오프라인으로 각 100명의 바리스타가 참여하는 '200인 200昧 바리스타 퍼포먼스', 커피와 함께하는 콘서트, 커피 관련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려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커피 향 그윽한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선사했다.

강릉은 예로부터 차 문화가 발달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강동면 하시동에 신라시대 차 문화 유적지인 한송정^{寒松亭} 다구^{茶具} 유적이 남아 있다. 화랑들이 강릉의 명승을 찾아 차를



달여 마셨다는 기록은 곧, 강릉이 '커피 도시'가 될 만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그 문화와 전통을 이어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 여기에 더해진 것이 자판기 커피로 유명한 1980년대 안목(강릉항)의 ‘길다방’이다. 길다방 전성 시대의 숨은 공로자는 30여 대의 자판기에 저마다의 비법으로 독특한 맛을 담아냈던 선구적 바리스타(!)들이었다. 이는 멀기만 했던 커피를 우리네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분수령이자, 훗날 ‘커피도시 강릉’을 만드는 서막이기도 했다. 강릉커피거리가 활성화되고, 유명 바리스타들이 강릉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커피는 원두의 종류와 생산지, 추출 방식, 첨가물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게 구분된다. 커피 특유의 향은 생두를 볶는 로스팅(roasting) 과정에서 생기는데, 같은 원두라도 로스팅이나 각기 다른 원두를 섞는 블렌딩(blending), 원두를 가는 그라인딩(grinding)의 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

커피 메뉴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또는 카페 에스프레소)와 아메리카노, 원두커피, 카페라테를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에스프레소’는 기계를 이용해서 고온·고압으로 단번에 추출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적고, 맛과 향이 진하다.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커피의 대명사와 같은 ‘아메리카노’가 되고, 우유 거품을 얹어 계피나 코코아 가루를 뿌리면 TV 드라마의 거품 키

스로 유명세를 치른 ‘카푸치노’, 초콜릿을 더하면 ‘카페 모카’, 에스프레소와 뜨거운 우유를 1:4로 섞으면 ‘카페라테’가 된다. 에스프레소에 점찍듯이 데운 우유를 한 스푼 살짝 올리면 ‘에스프레소 마키아토’, 데운 우유에 에스프레소 한 잔을 얹으면 ‘라테 마키아토’, 라테 마키아토에 캐러멜 소스를 첨가한 것이 ‘캐러멜 마키아토’이다.

에스프레소에 휘핑크림을 얹으면 마키아토와 비슷하지만 단맛이 강한 ‘콘 파나’가, 긴 유리잔에 에스프레소를 담고 얼음과 설탕 시럽을 얹으면 아이스커피의 일종인 ‘카페 프레도’가, 초콜릿 시럽을 뿌리고 우유 거품을 얹으면 ‘카페 토리노’가 만들어진 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뜨거운 에스프레소를 더하면 멋스러운 ‘아포 가도’가 된다.

‘아메리카노’에 차가운 휘핑크림을 듬뿍 얹은 ‘비엔나커피’는 커피의 짝사랑한 맛과, 휘핑크림이 녹으면서 진해지는 단맛이 포인트라 휘핑크림을 짓지 말고 음미해야 한다.

또 다른 추출 방식으로 핸드 드립 커피와 더치커피를 들 수 있다. ‘핸드 드립 커피’는 분쇄한 커피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커피를 내리는데, 커피 고유의 맛과 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더치커피’는 커피에 상온의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추

출하는 과정이 눈물 같다고 하여 ‘커피의 눈물’이라고도 하고, 숙성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커피의 와인’이라고도 한다. 커피의 쓴맛을 없애고 좋은 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 만든 방법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는? 멋진 곳에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내려주는, 아주 비싼 커피? 아니다. 가장 맛있는 커피는 좋은 사람과 마시는 커피이다. 자신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커피라면 더 바랄 게 없다. 100% 완벽한 커피가 반드시 맛있는 커피는 아니다. 커피 만드는 기술이 절반이라면,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절반,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의 느낌이 그 모든 것에 앞서기 때문이다.

강릉커피축제에 버금가는 차 축제도 있다. 이맘때쯤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 선사의 다도정신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국내 최대의 차 축제 해남 초의문화제가 그것이다. 조선 후기 불교사를 빛낸 초의 선사는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 당대의 다인들과 교류하며 다도를 정립하고 차를 중심으로 한 심오한 사상을 나누기도 했다. 한국의 다경(茶經)이라 불리는 자신의 저서 『동다송』에서 그는 우리 차의 색과 향, 기운과 맛이 중국차에 뒤지지 않음을 강조하고, 차를 채취해 만드는 법, 끓이고 마

시는 법, 성질과 효능 등 다도정신을 널리 알리며 차 문화의 증흥을 이끌었다.

초의 선사가 반평생을 지낸 일지암이 지금까지도 다인(茶人)들이 찾는 다도의 탄생지로 자리매김한 것도, 해마다 초의문화제가 열리는 것도 차가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六法供養) 중 하나라는 영향이 크다. 육법공양은 부처님 전에 향, 등, 꽃, 과일, 차, 쌀, 이 여섯 가지의 공양물을 올림으로써 부처님의 공덕에 감사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보살행을 다짐하는 불교의식이다. 불가에서 말하는 차는 ‘감로다(甘露茶)’라 하여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의 상징이자 불로장생하는 신묘한 천상의 음료를 뜻한다. 부처님께 올리는 주된 공양물의 하나이자 수행자들이 심신을 닦는 소중한 방편이기도 하다. 감로다 맑은 물로 마음의 오욕을 씻고 법문을 받들어 열반에 이르고자 하는 서원을 담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 다 공양(茶供養)이다.

커피도 좋고 차도 좋다. 차를 마신다는 것은 자신과 소통하는 시간이자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시간이다. 차를 마시려는 사람은 정성스러운 행실과 검소한 덕망(정행검덕 精行儉德)을 갖추어야 한다는 당나라 사람 육우의 말처럼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놓고 깊어가는 가을을 한껏 음미해 보는 것도 운치가 있겠다.

아직 아직
 식어진 햇살에도
 취한듯 버거운 새파란 객기

준비 없이 덤비는 칼 같은 바람
 무작스럽게 흔드는 그 힘 앞에

노랑게 놀라는 느티나무
 빨강게 질러 버리는 단풍나무
 하늘도 놀라 뒷걸음치는 높이

하나 둘
 지워내는 각자의 짐들

속절없이 버려내야하는
 너의 혼돈, 자만심

꽃 같은 비가 내리는
 이 길을 걷다보면

어느새 보이는
 너의 등뼈
 나의 등뼈

그것들을 떠난
 발 아래의 아스락 거림들...

가을밤의 두 가지 정감

이기찬

한국고전번역원 선임연구원

情結林泉愛	임천을 그리는 정 품고 사는데
門臨車馬音	문밖에는 오가는 거마의 소리
竹欄勤點綴	대 난간 애써 세워 화단 꾸미고
花木強蕭森	꽃나무 힘껏 키워 무성했었지
涼露枝枝色	찬이슬 가지마다 색 달라지고
秋蟲喙喙吟	풀벌레들 저마다 울어대는 밤
獨行還獨坐	홀로 걷다 다시금 혼자 앉으니
明月照幽襟	밝은 달이 내 가슴 비추어주네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제1집 시문집(詩文集) 권2

「가을밤[秋夜]」

이 시를 알게 된 것은 2014년도 가을 우연히 ‘달빛’이라는 대중 가요를 듣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찾아보니 이 곡은 위의 다산 시를 개사하여 싱어송라이터 권진원이 만든 노래였고, 그녀가 피아니스트·해금 연주자와 함께 만든 ‘만남’이라는 음반에 수록되어 있었습



니다. 거기에 실린 곡들은 대부분 다산, 퇴계, 율곡의 한시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대가들의 체취와 숨결이 느껴지는 한시에 매료되어 뭇가에 흘린 듯 이 앨범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저는 개인적 호기심에 원시^{源詩}와 노랫말을 비교해 보다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노랫말의 내용이나 신문 인터뷰를 보면, 이 시는 '유배지 강진에서 기약 없는 가족과의 이별과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이 생깁니다. 바로 수련^{首聯}입니다. 수련은 한마디로 '도회지에 살면서 전원을 그리워한다'는 뜻인데, 그게 맞다면 이 시는 시골 강진에서 지은 시도,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도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은 실마리가 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 난간^{竹欄}'과 '꽃나무^{花木}'가 시안^{詩眼}입니다. 이를 토대로 어렵사리 찾아들어 가다 보면 『여유당 전서』에 실린 「죽란화목기^{竹欄花木記}」와 만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산이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중부^{中部} 명례방^{明禮坊}에 집이 있었습니다. 다산은 그 집에 마당의 반을 할애하여 대 난간을 세운 다음, 각종 화초와 나무를 화분에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매일 퇴청한 뒤에는 그곳을 거닐며 꽃을 완상하였고, 벗들이 찾

아오면 함께 술 마시며 시를 짓곤 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조선 후기 대표적 시사^{詩社}의 하나인 '죽란시사'입니다.

결국, 다산은 이 시에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원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여기는 수레 소리 요란한 한양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전원생활을 맛보려고 화단을 꾸몄습니다. 단풍이 드는 가을이면 가지마다 이슬이 형형색색 은은하고, 밤에는 또 풀벌레 소리가 심금을 울립니다. 더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낙엽이 지면 또 어떻습니까. 화단은 늘 시절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기에, 홀로 거닐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밝은 달도 살며시 와서 어깨와 가슴을 감싸주네요. 날마다 이렇게 전원의 정취에 젖다 보니 문밖 시끄러운 소리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강진의 유배지에서가 아니라 2, 30대 공직에 있을 때 서울 집에서 지은 시이며, 긴 이별의 슬픔이 아니라 고요한 전원의 정취를 노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에서는 외로움과 그리움을 읽기보다 자연과 하나 된 물아상망^{物我相忘}의 행복을 읽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방귀희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대표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이사
 <E美지> <순대평론> 발행인
 저서 : <불교의 복지사상> <배제와 포용>
 <싱싱한 메시지를 팝니다> 등

이번학기 수업은 목요일 오전과 저녁 대학원 강의를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라서 은근히 온라인 강의를 원했지만 학교 방침은 전면 대면수업으로 전환되어 조금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첫 수업을 하였다. 그렇게 마주한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부끄러웠다. 줌 강의를 할 때는 마치 어떻게 하면 얼굴을 안보여줄지 연구하는 듯이 카메라를 쳐지 않거나 얼굴이 안보이는 방향으로 카메라 방향을 돌려놓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업할 때 얼굴을 보여달라고 사정을 해야 했다. 그런 학생들이었건만 오전 9시 수업인데도 미리 교실에 와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내심 놀랐다. 출석을 부르며 학생 한명 한명과 눈빛을 나누다 보니 내 앞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의무감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제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선생으로서의 열정이 치솟고 있을 무렵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

대학 축제로 차량이 통제된다는 내용이였다. 나는 축제에 대해 부정적이였다.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가 매일 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물가가 치솟아 올라 학생들이 점심 식사비용을 아끼려



고 편의점에 가서 김밥 한 줄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이때 축제라니, 지금이 축제를 할 시기인지 동의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축제날 학교에 가니 캠퍼스 안 곳곳에 천막이 쳐져있고 젊음이 넘치는 싱싱한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통 저

녁 수업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가는데 그날은 학교에 가서 축제 먹거리장터에서 해결하려고 1시간 전에 학교에 도착을 하니 중앙무대에서는 공연을 하고 있었고, 학생회관 외벽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여 공연장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공연을 보면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축제는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천막 안 간이 식탁 위에는 여지없이 술병과 안주가 놓여있었고, 학생들은 머리를 맞대고 얘기 반, 웃음 반의 대화로 즐거워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해서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목말라 있었던듯하다.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서로 만나지도 못하게 하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축제를 시기상조의 낭비라고 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알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는 함께 있을 때 생기가 나고 서로 뭔가를 하면서 즐거움을 느낀다. 짧은 시간이지만 축제를 지켜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은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때때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자유를 만끽하고 사회라는 큰 바다에 나갔을 때 언제라도 자기 먹이는 자기가 스스로 찾을 수 있다는 삶에 대한 안정권 확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인들은 그것을 정의니 공정이니 또는 평등이라고 포괄적인 개념을 선언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적

신뢰이다. 서로 믿어야 함께 할 수 있다. 서로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서 결국 불신이 생긴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불신이다.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종교는 믿음 없이는 성립이 되지 않기에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데 부처님이 살아계실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생기는 신뢰(샷다)와 불법을 이해하고 실천해서 생기는 환희심으로 법을 가르쳐주신 분에 대한 깨끗한 믿음(빠사다), 그리하여 생기게 되는 확신(아디목카)이 믿음이었다. 우리 사회 구조가 구성원 모두에게 정직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신뢰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깨끗한 정치를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자기 삶에 자신감이 생겨서 천천히 한 단계씩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성실한 노력보다는 한탕주의에 자신의 미래를 건다. 그래서 영끌을 해서 집을 샀다가 큰 손해를 보고, 가상화폐 같은 실체가 없는 것에 투자를 했다가 재산을 몽땅 날려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이고 특히 주류 사회에 있는 사회지도층이기에 지금 우리 사회는 얼마나 신뢰받고 있는지 점검해주길 바란다.

소확행

남해 정사

단음사 주교

3년 전쯤 한국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소확행’이라는 말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줄임말이다.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랑겔한스섬의 오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로 수필집에서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 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쓸 때의 기분’을 소확행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 붕괴가 불러온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심리가 묻어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전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상살이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 이런 시기에는 행복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보다는 그에 반대성향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단어들도 더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일수록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오감으로 느끼는 감정의 변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그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의 소중함을 찾는 것은 어떨까?



승직자로서의 생활은 크게 행복할 일도 없고 크게 불행할 일도 없다. 행복과 불행이라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에 승직자가 되어 수행과 불공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감정의 기복이 작아지게 되고 소소하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소중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새벽에 단음사 대문을 열기 위해 일어나 사택문을 나설 때, 땀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향기와 사원 대문을 열 때 귀를 자극하는 청량한 쇳소리, 새벽불공중 느끼는 은은한 향내음, 아침 샤워할 때 바디워시의 향긋한 꽃내음, 샤워 후에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를 분쇄할 때와 내릴 때 코끝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향과 입안에 한입 채웠을 때 느껴지는 풍부한 산미, 이 모든 것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소한 행복이다.

오전 10시 대중불공을 끝내고 일어날 때 무릎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뼈근함, 불공을 끝낸 후 단음사 서원당을 나갈 때 느껴지는 따사로운 햇살의 포근함과 뿌듯함, 오늘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설레임을 가지고 사택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텅비어 있어 냉장고 안의 하얀 조명만이 나를 반겨줄 때 작은 허탈감이 들지만 곧이어 대접에 밥을 놓고 스파이시 마살라 커리를 전자 레인지에 1분을 돌려 밥 위에 부어 잘 비벼서 숟가락 한가득 퍼서 김치 한조각과 함께 먹을 때 느껴지는 생존에 대한 안도감, 이 모든 것이 오후의 시작을 알리는 소소한 행복이다.

오후 시간의 여유와 책장에 꽂혀 있는 많은 책들을 볼 때의 배부름과 책을 넘길 때 느껴지는 역사의 흐름과 저자의 노고가 배여 있는 책 내음, 오후 5시가 되면 사택 문앞에 새끼고양이 두 마리를 데리고 밥달라고 야옹하는 삼색이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매년 8월 달쯤 되면 새끼고양이들을 데리고 사택으로 찾아와 생존을 위한 시위를 한다. 그리고 10월 달, 새끼고양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자취를 감춘다. 햇반 그릇에 고양이 사료를 한가득 채워 놓을 때 느껴지는 엄마의 마음, 이 모든 것이 오후 시간을 마감하는 소소한 행복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버려둔 시체를 귀신이 지팡이로 때리는 것을 보고 행인이 물었다.

“이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무슨 이유로 때리는가?”

귀신이 대답했다.

“이것은 나의 전신^{前身}이라 살았을 때 부모에게 불효하고, 나라에 충성하지 않았으며, 삼존^{三尊}을 공경하지 않았고,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하였으니 고통이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모두 나의 옛 몸 때문이오. 그 까닭에 와서 때리는 것이오.”

행인이 조금 더 가다가 보니 죽은 사람이 또 하나 있는데 천신^{天神}이 내려와서 시체 위에 꽃을 흩으며 시체를 어루만지고 있었다. 행인이 또 물었다.

“그대를 보니 천상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무슨 까닭으로 이 시체를 어루만지는가?”

천신이 대답했다.

“이것은 나의 옛 몸이오. 살았을 때에 부모에게 효순하고, 나라에 충성하였으며, 삼존을 공경하여 받들었고, 스승의 가

르침을 잘 따라서 나의 신^神으로 하여금 천상에 나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옛 몸의 은혜요. 이 때문에 지금 와서 은혜를 갚는 것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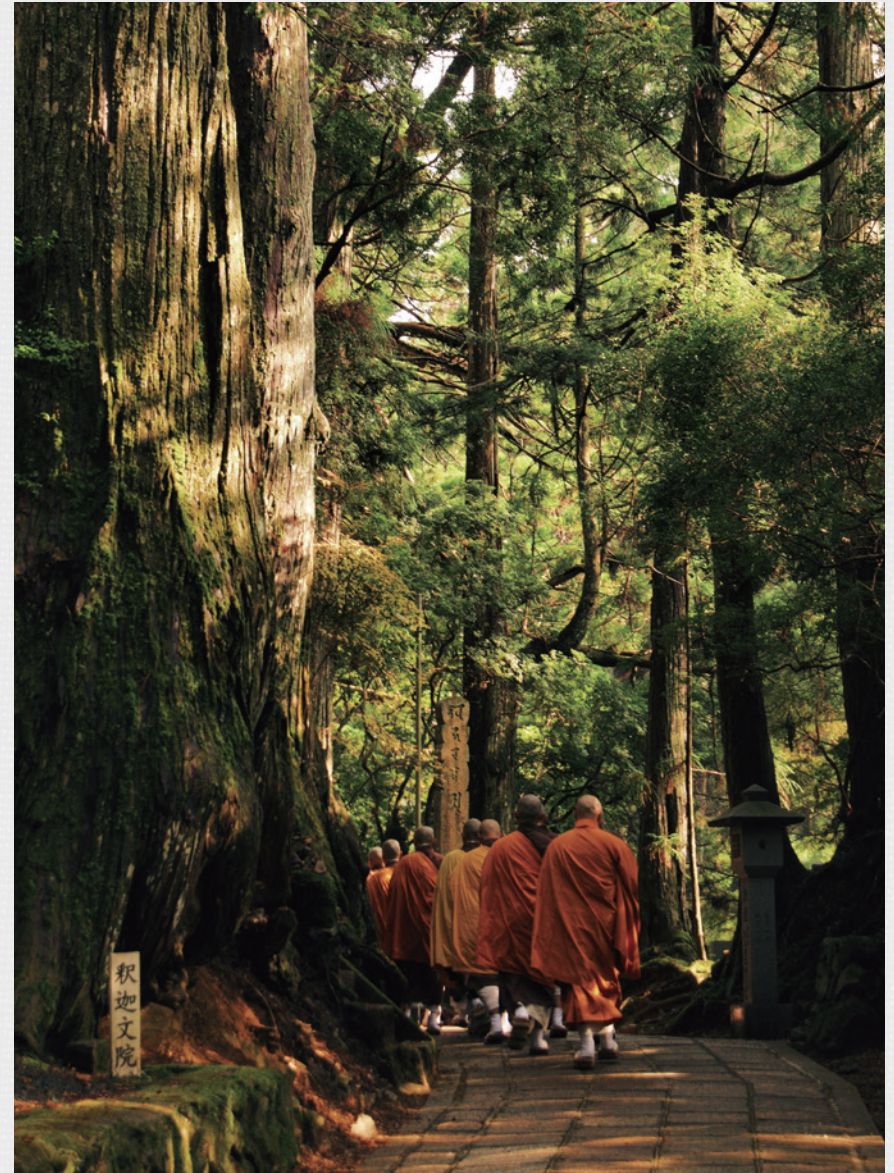
행인이 하루 사이에 이러한 두 가지 일을 보고 곧 집에 돌아와서 다섯 가지 계^戒를 받들어 가지고 열 가지 선업을 수행하여 부모에게 효순하고 충신으로 나라에 봉공^{奉公}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말을 남기기를,

“죄와 복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오래지 않는 것이니, 삼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전존설아육왕비유경, 天尊說阿育王譬喻經)

악을 행하면 지옥의 괴로움을 받고, 선을 지으면 천상의 즐거움을 받으며, 만약 능히 일체가 공한 선정을 닦으면 번뇌가 없어지고 열반을 얻는다.

(인연승호경, 因緣僧護經, 불교총전 발취)



새로운 희망을 일구자

김봉래

불교방송 전법후원국장

가속화되는 탈종교화로 종교계에 비상등이 켜진지 제법 되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제도권 종교에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고 대책을 잘 강구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예전 같은 권위주의나 ‘불신 지옥’ 같은 선동에 굴하지 않는다. 납득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가치관에는 결눈을 주지 않고, 개성과 자유를 숭상하며 자기존재가 존중받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불교계도 맹목적 신앙을 요구하거나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더 친절하고 낮은 자세와 선교방편善巧方便으로 소통해야 한다.

불교계 안팎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바람은 작으나마 희망을 가지게 한다. 진실을 알고 알리는 수행 포교를 위한 다양한 방편이 등장하고 있는 바 그 핵심은 폐쇄적인 데서 개방적인 데로의 변화다. 수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인 수행 외에 남방불교와 티벳불교 등의 다양한 수행방법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디지털 시대, 비대면 시대를 맞아 무료 공개강좌가 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예전 같으면 사찰에 나가야만 들을 수 있던 법문을 사이버 상에서 원할 때 원하는 내용을 찾아 들을 수 있

게 되었다. 인터넷에는 전통 미디어인 불교 언론사 뿐 아니라 스님 등 개인이 탑재한 강의나 법문들로 가득하다. 이웃종교에 비해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다.

40주년을 맞이한 동산불교대학의 경우 강좌를 유튜브에 올려 누구나 공부할 수 있게 개방했다. 주된 수입원의 하나인 수업료를 포기하기로 용단을 내린 것이다. 오프라인 강좌에 참여하지 못해 온라인에 들어온 이들은 강좌를 반복해 듣다 보면 귀가 뚫린다며 주위에 권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출판시장의 어려움에도 좋은 불서들이 꾸준히 출간되고 있는 점도 반가운 일이다. 필자가 공부를 본격 시작하던 1980년대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다. 어떤 책이라도 일단 읽기 시작하면 납득이 되고 읽은 만큼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다. 불교계 잡지들도 특색 있고 심도 있는 내용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대장경 한글화 이후에도 다양한 경전 번역과 해설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놓칠 수 없다. 이제는 한역 경전만이 아닌 산스크리트, 팔리, 티벳어 등 다양한 원전을 번역 해설한 책들과 그밖

에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저작의 번역물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제도권 불교 밖의 성과도 주목된다. 필자가 최근 접한 정용선 박사의 <장자, 붓다를 만나다>는 모순되는 듯 느껴지는 불교 교리들을 장자와의 비교를 통해 설득력 있게 풀어낸다. 시대에 따라 왜 다른 교리들이 나왔는가 하는 화두도 당대의 의문을 당대의 언어로 풀어냈다는 나름의 교상판석^{教相判釋}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벼락같은 깨침을 받았다. 지난 10년 간 불교방송에서 방송포교를 해온 성진 스님이 방송을 떠나며 불교권 밖으로 진출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안정된 곳에서 포교했다면 이제 그 자리를 양보하고 한 걸음 더 내딛겠다는 말씀이다. 불교가 우리 인구의 절반 이상인 무종교인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느끼던 차에 번갯불이 스치는 것 같았다.

상호 의존이 커지는 문명의 흐름상 어디나 개방화는 필연적이다. 우리 불교권도 다른 학문과의 통섭 혹은 이웃종교와의 교류 등 불교권이라는 우물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확대해야 한다. 불교가 폭과 깊이를 더하여 널리 소통하고, 특히 대중을 위해서 보다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존재 양식의 삶으로 이끄는 마음챙김 명상

신진옥 법사
철학박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겸임교수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행위 양식(Doing Mode)의 삶이란 실제의 세상과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나 바람 사이에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상정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 내리는 것인데, 이때 마음은 자신의 생각과 이미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생각이 곧 실체라고 착각하며 실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살지 못하고 머릿속 생각의 세계에 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삶의 많은 긍정적인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고, 삶 전체가 점차 기계적으로 굴러가는 자동화모드에 빠지기 시작한다.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느낌, 감각뿐만 아니라 타인 또는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 또한 자동화시킨다.

심리학자 대니얼 사이먼스(Daniel Simons)는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정신없이 행위 양식으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재미난 실험을 했다. 실험 참가자가 걸어가는 행인을 붙잡고 길을 묻는다. 행인이 길을 알려주는 동안 커다란 문짝을 든 두 사람이 이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간다. 커다란 문짝 때문에 길을 알려주는 행인의 시야가 잠시 가려지는 동안 처음에 길을 물었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다. 새로 투입된 사람



은 처음 사람과 완전히 다른 머리 모양을 하고 옷 색깔도 전혀 달랐고, 심지어 목소리도 달랐다. 그런데도 질문을 받은 행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질문하는 사람이 바뀐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동화되고 습관화된 상태에서 정신없이 살아가는지를 시사한다.

이와 반대로, 행위 양식과는 다르게 마음이 세상과 관계 맺

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바로 존재 양식(Being Mode)이다. 존재 양식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분석하며 판단하는 마음의 오랜 습관에서 한 걸음 비껴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을 생각이나 감정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알아차리며 곧바로 경험한다.

존재 양식은 우리의 모든 감각과 다시 온전히 접촉할 수 있게 해주며, 의식의 빛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로 우리를 되돌려 준다. 행위 양식이 덧이라면 존재 양식은 그 덧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존재 양식의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곧 마음챙김 명상이며, 이를 통해 마음의 기어를 행위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기억을 단지 '기억'으로, 계획을 '계획' 자체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해준다. 현재 자신이 과거를 뒤돌아볼 때 기억을 회상하고 있음을, 반대로 미래 시제에서는 미래를 계획하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자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신적인 시간 여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거를 반추하며 지난 일을 현재로 소환하여 '다시' 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사는 데서 오는 부가적인 마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지금 이 순간, 의식적으로 어떠한 판단도 없이 주의 기울이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경험을 판단하고 부정하고 다투지 않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의 덧에 걸리거나 미래의 걱정으로 사로잡혀 살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 있고 깨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혹은 어떻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두려워하는 집착의 상태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관하게 됨으로써 현존의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있는 다양한 창의적인 선택지를 살려낼 수 있다. 타인과 세상에 대해 그저 판단 내리고 생각만 하는 대신 주변의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생각은 그저 지나쳐 가는 정신적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 마음챙김 명상으로 이를 알아차릴 때, 더 이상 외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도 행복과 만족,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듯 자연스러운 열정과 활력, 평정심이 당신 내면에서 솟아날 것이며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야는 놀랍도록 넓어질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찰의 커피문화

Ⅲ. 사찰의 커피문화

김상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대학 불교학전공 / 바리스타

1. 템플스테이와 커피 수행

사찰에서는 차를 다반사로 하는 것은 커피를 즐기는 것을 넘어서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일부 문화로까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찻집을 만들어 차와 커피를 판매하는 다실이 있는가 하면, 핸드드립 도구들을 갖춰놓고 머신보다 더 자주 이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커피 도구들로 즐거움과 안락함을 함께 누리고 이롭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수행과정이 아닐 수 없다. 즉 수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도 커피를 적용시킨 것이다.

핸드드립 커피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드립 방식에는 여과지의 여부에 따라 페이퍼 드립과 용 드립으로 나눌 수 있다. 페이퍼 드립은 여과지가 커피오일을 걸러주어 깔끔한 맛을 낸다면, 용 드립은 커피오일 까지 추출되어 원액과 섞이기 때문에 걸쭉한 맛을 낸다.



이렇게 나뉘는 드립 방식으로 보아 사찰에서는 용 드립 보다 페이퍼 드립 방식으로 추출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게 된다. 이에 페이퍼 드립을 중심으로 한 핸드드립 커피 도구와 추출과정을 살펴보자면, 도구로는 원두 분쇄의 기본이 되는 그라인더인 핸드밀이 있다. 커피를 맛있게 손수 내리기 위한 최적의 드립포트, 분쇄한 원두가루를 물에 투과할 여과지가 있다. 그 여과지를 올려놓고 원두를 추출할 수 있게 해주는 드리퍼, 추출된 커피가 알맞게 담길 드립서버가 있다. 드립서버는 꼭 필요사항은 아니지만 추출되는 커피의 양을 알맞게 조절하고 분배하는 과

정에는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도구들은 재질과 제조사에 따라 종류가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손으로 정성을 다해 직접 커피를 내리는 추출과정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해 보자면, 물의 온도를 90℃~95℃ 유지한 다음 적당한 굵기로 그라인딩한 커피 가루를 드리퍼에 접힌 여과지에 넣고 평평하게 맞춘다. 그런 후 뜸을 들이고 물을 부어 추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 번 정도 원을 그려가며 커피를 내린다. 서둘러 뽑게 되면 신맛, 오래 뽑으면 쓴맛이 나고 물줄기가 높으면 짙은 맛, 낮으면 짙맛이 나기에 신중하고 침착하게 추출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수행자답게 일목요연한 제조과정은 숙달 되어질수록 원두의 품질이 우수하고 추출자의 실력이 출중할수록 최상의 커피 맛을 낸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핸드밀을 기반으로 한 수동식 핸드드립 방식이 더 보편화되었다. 수행적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도 커피를 적용시킨 사례도 많다.

이에 대표적인 사찰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만월산 현덕사이다. 이곳에서는 템플스테이 일정에 참가자 자신이 직접 커피를 볶고 내리는 체험 프로그램을 넣어 수행자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물론 직접 볶은 커피를 바로 추출하기에 그

맛 또한 일품이다. 이를 경험한 사찰 내의 대중들은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색다른 방식을 통해 사찰은 또 다른 멋과 즐거움을 나타내고 있다.

커피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스님¹⁾한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 당시 스님이 머무셨던 절에서도 위의 현덕사와 같이 콩을 분쇄하는 그라인딩 과정에서 맷돌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알콜 사이폰이라는 도구로 커피를 추출하고 제조과정에서 미량의 미네랄 소금을 살짝 넣어 그 풍미를 살려 음미하였다고 한다.

이를 통해 사찰에서는 꽤나 예전부터 수동식 핸드밀인 맷돌로 콩을 갈아 커피 도구를 이용하여 내리는 사람의 방식대로 커피를 향유하는 문화를 형성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찰과 그로 말미암은 다실에서의 원두커피 활용도는 차만큼이나 높아졌다. 차와 마찬가지로 커피는 기본적인 ‘음다’로 여기며, 오늘날 또 하나의 커피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불교와 커피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이와 관련된 수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각종 기사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사찰에서의 커피문화는 결코 낮설지 않다.

1) 여휴스님 말씀에서 참조한 내용임을 밝힌다.

녹차를 알고 마신다는 것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녹차를 안다는 것, 그 시작은 삼국유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문무왕 때 종묘제사를 지낼 때 음식과 함께 녹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녹차는 1,000년 이상 우리 민족과 함께,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래 또한 신라 선덕왕(A.D. 632~647)때 부터, 차 재배가 시작된 것은 신라 흥덕왕 3년(A.D 828년) 당나라에 사신인 대렴(大廉)이 차 종자를 가져와 왕명으로 지리산에 심게 하여 그 주변 사찰을 중심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녹차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녹차의 맛과 향, 효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녹차는 카테킨(catechin)과 테아닌(theanin), 카페인(cafein)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카테킨은 차의 독특한 떫은맛을 내고 몸속의 여러 가지 독소와 결합하여 해독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항산화 효과가 있고, 몸의 세포를 질병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환절기 유행하는 감기 바이러스 표면에 달라붙어서 활동성을 감소시키고 세포에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을 막는 코팅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테아닌은 차의 감칠맛을 내고 흥분을 가라앉히는 진정제 작용을 하는 성분입니다. 녹차의 맛은 카테킨의 떫은맛과 테아닌의 감칠맛이 조화를 이루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도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소량을 섭취하면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간혹 녹차의 카페인을 걱정하는 이들이 있는데 녹차의 카페인도 커피와 달리 카테킨 성분과 결합하여 체내에 느리게 흡수되며 또한 녹차 한잔(100mL)에는 커피 한잔의 1/5에 해당하는 카페인(20-30mg)이 들어 있어 천천히 마신다면 인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녹차의 맛과 함께 녹차의 성분에는 향을 결정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차잎에 함유돼 있는 휘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성분입니다. 0.1% 이하의 아주 미량에 불과하지만 그 종류가 수백여 종으로 이 성분들이 작용하여 녹차의 향을 결정짓는다고 합니다. 다만 전문가가 아니면 이 미세한 향의 차이를 식별해 내기란 쉽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녹차에서 우려내는 그윽한 향은 녹차의 맛과 함께 녹차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녹차에 대해 '성품이 차고 서늘하고 맛은 달

고 쓰며 독은 없으며, 기운을 내리게 하여 음식에 제한 것을 없애주며, 머리와 눈을 맑게 하며 소변을 통하게 하여 당뇨병에 좋으며 잠 많은 사람에게서 잠을 쫓아 주며 뜸으로 데인 독을 풀어준다'하여 녹차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녹차는 한방, 미용, 노화방지, 항암과 항균작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일상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꾸준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맘때면 찬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이 움츠리기 시작하고 실외보다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질 것 같거나 몸에 한기가 종종 들것입니다. 이럴 때 따뜻한 녹차 한잔 우려 마시면서 그 향과 맛에 취하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다 우려내고 난 녹차 찌꺼기는 건조한 방에 두면 가슴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안의 잡냄새도 없애고 녹차 향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밤 잠들이기 힘들시다면 녹차 한잔을 자신에게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책꽂이를 통째로 옮겨 그린 듯한 책가도^{책架圖}는 책을 비롯하여 당시의 여러 귀중품들을 함께 그린 그림을 말하며, 우리말로로는 책거리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책가도는 왜 그렸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책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했고, 책을 읽어 쌓이는 문인으로서의 소양은 조선시대 선비 문화 전반에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 풍속화 등 다른 회화 장르에서도 책 읽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책가도는 책을 사랑하는 우리 문화를 대변하는 그림입니다. 특히 궁중화원이 그린 책가도가 많다는 것은 왕실에서도 그 쓰임새가 많았던 것을 의미합니다. 일찍이 정조는 어좌 뒤에 일월오봉도 대신 책가도를 배치하였다고 하며 “책을 즐겨 읽지만 일이 많아 책을 볼 시간이 없을 때는 책가도를 보며 마음을 푼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책 사랑은 조선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았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이름을 숨겨놓았다

대부분의 궁중회화와 민화에는 화가의 낙관이 없어 누가 그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책가도 중에는 여러 물건 가운데 인장을 그려 넣으면서 인면(印面)이 보이도록 눅혀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숨겨진 도장, 즉 “은인(隱印)”이라고 합니다. 화가는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다른 그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책가도만의 흥미롭고 재치 있는 관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중화원이었던 이형록(1808~1883 이후)은 책가도 병풍 제9폭에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작가미상으로 알려졌다가 숨은 도장을 통해 화가가 이형록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귀한 보물을 내 방 안에

책가도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재미는 ‘상징성’입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러 물건에는 사람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져보는 순수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거 시험에 합격한 선비에게 살구꽃 아래에서 향연을 베풀어줬다는 기록이 있어, 살구꽃은 과거 급제와 입신양명을 상징합니다. 수선화의 ‘선’에는 신선(神仙) 자를 써서 신선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공작 깃털도 책가도의 단골 소재이며, 문인으로서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시계 또한 실제로 보기 어려운 귀한 물건이었습



이형록, <책가도>, 조선 19세기, 비단에 색, 153.0×352.0cm, 덕수6004

니다. 자명종 시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7세기라고 알려져 있지만, 19세기에도 실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물건이었습니다. 석류는 씨가 많아 다산(多産)과 자손 번창을 기원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제10폭에 등장하는 잉어는 용으로 변하는 ‘어변성룡(魚變成龍)’의 고사(故事)를 바탕으로 부귀와 출세를 기원하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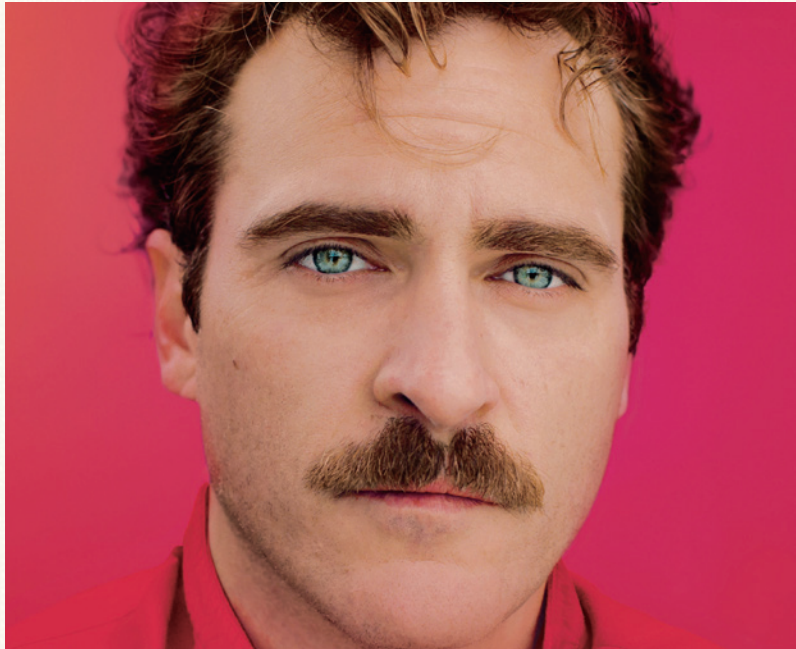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 책가도는 시각적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책의 배치와 색채 표현으로 공간감을 표현하였는데 특히 진한 녹색 바탕과 갈색 테두리, 연녹색 상판 등 고급스러운 바탕색이 일품입니다. 금선을 두른 고풍스러운 바탕색이 화려한 색감의 기물들과 잘 어우러져, 현존하는 책가도 가운데 가장 수준 높은 기량과 뛰어난 미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추천 소장품, 이재호> 제공

의외로 불교에 영향을 받은 영화들 BEST 10

TERU(조세훈)

평범한 회사원, 대중음악연구소 음악평론가 제의를
받을만큼 음악과 영화를 관하는데 능하다.
콘텐츠 소개 프로그램 올레티비<파본자들> 출연
500여명 구독자 보유 브런치 작가



- | | |
|------------------------|-----------------------|
| #1 스타워즈 6부작(1977~2005) | #6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2003) |
| #2 그녀(Her, 2013) | #7 천년을 흐르는 사랑(2006) |
| #3 사랑의 블랙홀(1993) | #8 위대한 레보스키(1998) |
| #4 매트릭스(1999) | #9 파이트 클럽(1999) |
| #5 아메리칸 뷰티(1999) | #10 옛지 오브 투모로우(2014) |

#2 그녀 (Her, 2013)

감독 스파이크 존즈

〈그녀〉는 근 미래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남자가 그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반한다. 대필 작가 테오도어 톰블리(와킨 피닉스)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위해 새로운 운영체제 OS1 ‘사만다(스칼렛 요한슨)’를 구입한다. 모든 것이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기술은 인물들의 외로운 내면, 벽찬 마음, 공허한 관계를 표현하는 도구로 적극 활용된다.

최근에 이혼한 그는 매력적인 여성과의 만남에서 그녀가 지속적인 관계를 요구하자 도망간다. 주체는 욕망한다. 우리가 타인을 두려워하는 건 그가 욕망하는 주체이며, 그 욕망을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만다는 테오도르가 짝어져야 하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나의 욕망에만 응답하고 자신의 욕망은 부재한 대상. 그런 객체야말로 테오도르가 갈망하던 존재였다. 그러나 대필 전문 작가인 그가 쓰는 편지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고객이라는 타인의 감정을 담은 글이다. 이런 아이러니가 굉장히 큰 울림을 준다.

뛰어난 음성인식 능력과 전산처리속도를 가진 사만다는 육체는 없지만, 테오도르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사만다는 단순히 프로그래밍이 잘 된 기계가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었다. 〈자기 이름 짓는 법〉이란 책을 읽고서

18만 개의 이름 중 그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을 선택했다. 그녀의 무한한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상황을 경험하고 학습해 간다. 이 점을 미뤄볼 때 그녀는 지성과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인간답다고 정의 내릴 수 있을까? 이것은 쉽게 답하기 어렵다.

어떤 면에서 사만다는 거의 부처님 같은 형상이다. 그녀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것에 대해 배우고 싶다” 고 말하면서 깨달음을 구한다. 필멸하는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서 세간의 도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그녀는 무한한 연애를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테오도르에게 동시에 641명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하자 테오도르는 화를 낸다. 이에 사만다는 “그렇지만 마음은 상자처럼 뭉가로 딱 차는 게 아니에요. 더욱 사랑할수록 크기가 늘어나기도 해요.” 라고 맞받아친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인간의 감정을 흉내 내는 것일까? 이 영화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을 질문하는 공안(公案)과 같다. 인공지능은 자각에서 해탈로 진화한다. 육체를 갖는다는 개념에 얽매인 애착과 갈망을 통해 그녀는 결국 열반을 성취한다. 깨달음을 얻은 상태란 업(業)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그녀>는 테오도르에게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내륙의 바다, 소양호 ②

유람선은 소양호 안에 있는 청평사에 잠시 정박을 했고 우리는 내려서 걷기 시작했다. 청평사 입구에는 빨간 포인트를 자랑하는 출렁다리가 눈에 띄었다. 길이가 길지 않아 출렁출렁 장난치는 다른 관광객 덕분에 울렁울렁 다리를 건너 청평사 설화인 공주와 상사뱀의 전설을 짧게 글로 읽을 수 있었다.

중국 원나라 순제의 딸은 매우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어 궁중에 출입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연정을 품을 정도였다. 어느 날 한 말직의 청년 관리가 궁전 뜰을 거니는 공주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으나 사랑고백도 못 해보고 상사뱀을 앞다가 죽게되면서 ‘이 세상에서 못다 한 사랑, 내 죽어서라도 그녀와 함께 하리.’ 라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낮잠을 자다 깨어난 공주는 난데없이 뱀이 휘감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였으나 그 뱀은 공주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궁중에서 나와 죽기 전 명산대천이나 유람하겠다고 결심한 공주는 배를 타고 고려로 와서 금강산 구경 길에 올랐다가 청



평사가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참배를 하려는데, 청평천을 건너 회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상사뱀은 공주가 걸음을 걷지 못하도록 요동을 친다. 이때 공주는 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만일 들어가기 싫거든 잠깐만 여기에 떨어져 있거라. 그럼 속히 절 구경을 하고 돌아와서 너와 다시 함께 하겠노라”

이 말을 들은 뱀은 몸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10년 만에 흠가분한 몸이 된 공주는 구성폭포를 맞으며 몸을 씻고 절 안으로 들어가서 법당과 절의 이곳저곳을 살피다 가사^{袈裟}를 만들기 위해 아름다운 비단과 바늘이 널려 있는 방을 발견하게 되었다.

문득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가사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 열심히 바느질하여 옷을 완성하고는 다시 뱀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돌아갔고 뱀이 다시 공

주의 몸을 감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벼락이 떨어져 상사뱀은 새까맣게 타 죽어버렸다. 마침내 뱀에서 해방된 공주는 부왕에게 자초지종을 아뢰었고, 순제는 부처의 은덕에 감사하며 이 절에 공주탑을 세웠다고 한다.

설화를 곱씹으며 ‘역시 부처님의 공덕은 하늘과 같아라...성불합시다.’ 합장 한 번 올리고 발걸음을 옮겨 배에 복귀하였다. 연신 핸드폰 뷰로 멋진 풍경들을 다 담지 못하는 아쉬움에 나도 망원렌즈 탑재된 고가의 카메라 하나 목에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든 소양호였다.

동화나라 노래의 섬, 남이섬 ①

숙소에서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 부지런한 소영이가 내린 드립커피 향과 함께 기지개를 펴 본다. 오늘은 룰루랄라~ 남이섬으로 출발한다. 남이섬하면 강변가요제가 떠오른다. 지금은 공개 오디션이 여러 방송국에서 개편되어 대장정이 펼쳐지지만 우리 세대의 가수 등용문으로 제일 유명했던 대학가요제와 강변가요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꼭다리 소년 같은 여대생이 머리에 손수건 하나 질끈 두르고 손에는 탬버린을 흔들며 담다디 담으로 흥겹게 어깨춤을 추게 만들고 하얗게 피어나는 물안개를 연상하게 하는 노래며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가 되어보겠다고 목청껏 외치던 우리에게 남이섬은 노래의 섬이다. 지금은 잔잔한 멜로디가 떠오르며 작은 눈사람을 만들며 베이지색 떡볶이 코트와 머플러, 바람머리를 연상케하는 동화나라 남이섬이지만 말이다. 남이섬까지는 춘천에서 한 시간 거리였다.

그 옛날엔 지도하나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갈 수 있었는데 이제 친절하네비 양의 도움이 없인 기어를 움직일 수 없는 길치가 되었네^^ 주차장에 여유롭게 반듯하게 주차를 하고 (흠, 소양호와는 완전히 다른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말이지~) 그렇게 우린 짚라인 매표소 앞에 섰다.

남이섬 들어가는 방법은 보편적인 배편과 다이내믹한 짚라인 체험이 있었으니 우린 당연히 짚라인을 선택했다. 금액에 조금은 놀랐지만 남이섬에서 돌아오는 배편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 부담스럽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매표를 하고 입장을 하는 우리였다.

짚라인 탑승 타워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로 탑승 장소까지 이동 하고난 후, 문이 열리며 바라본 풍경은 저 멀리 보이는 남이섬이 한눈에 들어오는, 보기만 해도 설렘을 느끼게 해주는 뷰였다. 캐빈들이 안전장치를 철저히 점검하고 두 명씩 출발!!!

소요시간은 2분도 채 안 되는 거리였지만 우리에게겐 5분 정

도 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핸드폰 안 떨어지게 조심하라는 캐빈의 친절하 코멘트와 함께 눈이 커서 겁이 많은 소영이는 ‘아이고,아이고’ 를 외쳤고 ‘우와~너무 신나!’를 외치는 나의 대조적인 모습이 제법 볼만했다. 1분 30초의 비행은 하늘을 나는 짜릿한 쾌감과 함께 하늘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느끼게 해 준 색다르고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금세 도착한 동화나라 노래의 섬 남이섬 <welcome to naminara republic >

마치 다른 나라로 타임라인을 넘는 듯한 기분이었다. 작은 섬이라고 하나 결코 작지 않은 남이섬은 하루를 꽉 채우고도 부족할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남이섬에서 숙소를 찾아볼 걸 그랬다. 누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해 주지 않았던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고 말이다. 곳곳마다 설치된 조명등들이 밤에는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상상하도록 만들었다.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오월의 내 사랑이 숨쉬는 곳
지금은 눈이 내린 끝없는 철길위에
초라한 내 모습만 이 길을 따라가네

- 춘천 가는 기차 song by 김현철

『천수경』
지대마니보살

持大摩尼寶菩薩

해광 정사

시법사 주교



서원당에서 불공 올릴 때 천수경을 읽지요. 천수경에는 많은 보살님들이 나오시고 우리는 그분들을 호명합니다. 그런데 아미타여래, 관세음보살 등은 많이 들어 보았지만, 지대마니보 보살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모두가 익히 아는 지장보살님의 다른 명호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육도(六道: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의 중생을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특히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지옥에 들어가 죄지은 중생들을 교화, 구제하는 부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떻게 표현 될까요? 천수경에서 도산(칼산이 있는 곳), 화탕(불길이 끓는 곳), 아귀(배고프고 먹지 못한 곳), 한빙(얼음으로 덮은 곳) 등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중생을 모두 건져내기 전에는, 즉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대원본존의 큰 보살님 이십니다. 모습은 다른 보살님들처럼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민머리 또는 초록색으로 되어있고 오른손에는 석장과 왼손에는 보배구슬을 들고 있습니다.



〈지장보살도〉, 원주역사박물관,
한국 광복이후, 52x113cm, 원주4114

‘옴마니반메훔’과 ‘지대마니보’에서 ‘마니’란 보배구슬을 나타냅니다. 석장(육환장)은 지옥문을 깨뜨리고 보배구슬은 어둠을 밝힙니다.

불교총지종은 소의 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에 근거하여 득락전에 아미타삼존불을 모셨습니다. 포항 수인사와 부산 정각사, 성화사 등의 득락전에는 중앙에 아미타부처님, 협시보살로 왼쪽에 지장보살님과 오른쪽에는 관세음보살님을 모셨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극락세계는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과 기쁨인 곳입니다. 득락전에서는 가족과 돌아가신 조상의 영식을 위해 불공을 올리며 현생의 이고득락(離苦得樂)과 내생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통사찰에서 지장보살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장전, 명부전, 시왕전에 계십니다. 이곳에는 지장보살님과 시왕을 같이 모시기도 합니다. 시왕(十王)은 중생들이 죽은 후 죄의 경중을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입니다. 이분들 중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분은 5번째 염라대왕입니다.

김재동
법장원 연구원



연화^{蓮華}는 불상의 대좌^{台座}에서 볼 수 있고, 『법화경』 『화엄경』과 같이 경전 이름에서 볼 수 있다. 태장만다라에서는 중대팔엽원에 연화를 도안화^{圖案化}하고 있다. 연화의 기원도 오래돼 멀리 고대 이집트에 그 모습이 보인다. 『사지^{死者}의 서^書』 그림 중 하나는 오시리스 신 앞에 호루스 신의 네 아이가 연화 위에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연화에서 발생하는 사람 머리^{人頭}를 한 태양신 그림이 있다. 오시리스는 본래 풍양^{豐穰}을 약속하는 농업신이자 천지창조의 신이다. 호루스는 태양이다. 태양이 연화를 자리로 하는 것은 연화가 태양을 낳는 근원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인도에 있어서는 베단타 시대에 세계 만물을 낳는 근원의 것을 브라흐만(Brahman)이라고 하며 브라흐만은 곧 연화에서 나타난다. 연화는 만물창조의 근본이 되고 브라흐만을 인격화한 범천은 연화에서 나타난다. 연화는 또한 여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만물을 낳는 위대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불교에서는 이 생명력을 불타 교화의 힘, 법(dharma) 그 자체를 나타낸다. 수승한 법, 묘법으로서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성립되면서, 대생명과 함께 진흙에서 생겨나는 연꽃으로, 정보리심의 뛰어난 방식을 보여주게 된다.

또 극락정토는 연못 속에서 피어나는 연화로 나타낸다. 이는 청순한 마음과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가리켜 정토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태장만다라 중대팔엽도 연화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태장의 중대^{中臺}야말로 태아가 출생하고 무한히 성장해 가는 것처럼, 안에 숨겨진 마음의 보물이 드러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무한히 발전해 가는 것을 나타낸다.

마하바라타의 천지창조 신화에도 연화가 등장한다. 그것은 영겁의 자리에서 명상하는 비슈누 신이 일곱 머리의 용 위에 누워 세계를 창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비슈누 신의 배꼽에서 연화가 생겨났고, 그 연화 위에 창조신 범천이 태어났다는 것이다. 용은 하늘을 비롯한 일체의 물을 지배하는 것이고, 비슈누는 대생명의 상징이다. 명상할 때 범천이 생겼다는 것은 이 창조신은 단순히 자연계의 물질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적인 인격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을 나타낸다. 거기에는 청정심과 인격의 창조를 의미하며, 연화좌 위의 불교 제존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는 연화좌를 생각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된다.

연화는 야차귀신과 유사한 파드마 파니(Padma-pāṇi 蓮華手)와 관련되며 많은 연화부의 존^尊이 만들어진다. 한편 귀신의 금강을 지닌 것으로 바즈라 파니(Vajra-pāṇi 金剛手)가 바탕이 되어 많은 금강신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범천, 제석 등과 습합하여 연화와 금강의 신들은 만다라를 구성하는 주요 존이 된다.

파도치는 삶은 내가 아니다

법상 스님

부산 대원정사 주지
유튜브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운영자
마음공부 공동체 '묵탁소리' 지도법사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바다 위에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 삶이란 파도에 불과하다. 온갖 존재가 벌이는 울고 웃는 삶의 스토리가 다만 '파도'일 뿐이다. 파도는 본질이 아니다. '하나의 바다'만이 참된 본성일 뿐.

바다와 파도의 비유는 선에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실상을 밝히는데 종종 사용되는 비유다. 하나의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위에서는 바람이 불어옴에 따라 파도가 친다. 날씨가 좋을 때는 파도가 잔잔하고, 날씨가 거칠 때는 파도도 거세진다. 그러나 파도가 잔잔하든 거세게 몰아치든 바다의 심연은 언제나 고요하다. 파도는 인연 따라 끊임없이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지만, 바다는 한결같이 그렇게 있을 뿐이다.

내 몸과 내가 일으키는 생각, 감정, 욕망, 의식, 그리고 세상속의 온갖 사건들은 바로 이 파도와 같은 것이다. 인연 따라 파도가 치듯, 인연 따라 행복한 일도 괴로운 일도 일어난다. 좋고 나쁜 온갖 감정들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업도 성공했다가 실패한다. 존재 또한 태어났다가 죽는다. 세상 모든 것은 이처럼 인

연 따라 왔다가 간다. 생노병사, 성주괴공, 생주이멸이라고 하듯이 생겨난 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변화하며 온갖 풍랑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때가 되면 사라진다.

우리는 이러한 파도를 나로 여긴다. 거센 파도가 치듯, 거센 화나 욕망이 몰아칠 때 그 감정에 빠져 사로잡힌다. 실패하고 성공할 때마다 울고 웃기를 반복한다. 그 모든 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든 오고 가는 것들은 진짜가 아니다. 나도, 내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욕구도, 화도 진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마저도, 이 세상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도 진짜가 아니다. 다만 파도일 뿐이다.

파도는 진짜가 아니다. 파도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며 실체가 없다. 파도의 바탕인 바다만이 진실하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든 고요하든 바다는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파도를 나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파도의 모양에 따라 울고 웃기를 반복하며 살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파도가 아닌 바다다. 그 어떤 울고 웃을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바다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겉모습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의 본질은 오고 가는 파도가 아니라, 그 배경에서 언제나 한결같이 있는 바다이다. 파도가 아닌 바다가 나의 참된 모습이다. 평생 파도만 보며 울고 웃지 말고 배경의 바다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공부요 선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파도에 불과하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파도일 뿐이다. 내 삶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 또한 마찬가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느끼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상 역시 전부 파도다.

바다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다.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생각과 분별 너머에서만 곧장 이 모든 것이 파도가 아닌 바다였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 선수행이란 바로 그동안 파도가 나라고 착각하던 삶을 돌이켜 파도가 곧 바다임을 깨닫는 마음공부다.

- '법상 스님의 목탁소리' 공식 카페



김용오 | 포항 수인사 교도

바람이고 싶다

너의 울음소리에
아직 가슴 아파하고

쪽빛 하늘과 맞닿은 곳
너의 은빛머리 일렁일 때
내 마음은 또 왜 이래

누웠던 일어나고
다시 눕는 너의 모습에
너를 안고 춤추고 싶은
바람이고 싶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퀴즈로 알아가는 알쏭달쏭 상식

①㉔		㉒		②㉑			③㉓		㉕
		④	㉖						
					⑤㉗			㉙	
⑥		㉚						⑦	㉛
		⑧		㉜					
⑨㉝						㉞		⑩	
				⑪	*				
			㉟					⑫****	
⑬	**					⑭#			
	⑮							⑯	

칸을 채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정답란에 기재되며,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홍보실

●정답은 위드다르마 다음 호, 총지신문 11월호 게재

가로 열쇠

- ① 불교에서 겨울 동안 승려들이 한 곳에 모여 바깥 출입을 삼가하며 하는 수행
- ② 백조의 호수, 무용
- ③ 중생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 ④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둘러싸인 바다, 000식 식단
- 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뜻
- ⑥ 수면 상태에서 걸어 다니거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병
- ⑦ 페리오, 2080, 죽염
- ⑧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과를 후에 받게 된다는 뜻
- ⑨ 세계 3대양의 하나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 ⑩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정림사지 오층석탑
- ⑪ 고대 동서양의 교역로, 비단길
- ⑫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
- ⑬ 건물이나 구조물을 세우거나 쌓아 만들
- ⑭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가장 긴 코스, 높이 1,215m의 산
- ⑮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
- ⑯ 불교의 이치나 가르침을 말로 풀다

세로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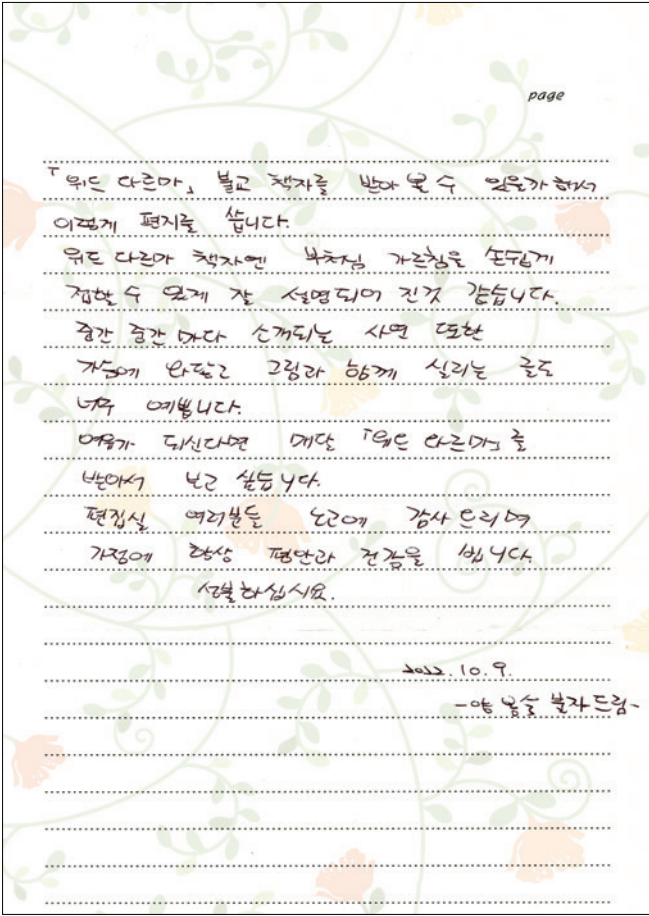
- 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꾸는 뜻
- ㉒ 걸인, 왕자와 00
- ㉓ 대조영이 세운 나라
- ㉕ 부산 대표, 국내 최대의 수산 시장
- ㉙ 우리 몸의 피가 온몸을 돌 수 있도록 펌프 역할을 하는 중심 기관
- ㉚ 인구수 세계 1위, 국토 면적 세계 4위 국가
- ㉛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유형의 이야기, 일편단심
- ㉜ 오징어의 한 종류, '00가 쌀밥이라면 오징어는 보리밥'
- ㉝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침입한 사건
- ㉞ 불교에서 중생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부처님
- ㉟ 고려 제 1대 왕
- ㊱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주요 시설
- ㊲ 방 안이나 실내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방 기구
- ㊳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 * 우유, 달걀, 설탕으로 만든 식품, 휘핑크림
- ** 불교에서 삼악도 가운데 하나로 죽은 뒤에 짐승으로 태어나 괴로움을 받는 세계
- *** 인간의 성품은 본래부터 악하다고 보는 순자의 학설
- # 둥근 몸에 검정 가시가 박혀있는 해산물

지난호 정답

①㉑	소	의	경	전			②㉒	국	가	대	표
			③	화	양	연	화				
④	공	자		위		기		⑤㉓	장	희	빈
			⑥㉔	잠	복		⑦	법	구	경	대
		⑧	자					⑨	각	주	
			⑩	리	어	㉕	카	㉖	계	기	㉗
⑫㉘	희	사			⑬	네	덜	란	드		분
			⑭	과		이			⑮	라	디
⑮	애	니	메	이	션				이		열
						⑯	운	칠	기	삼	

〈가로〉	〈세로〉
① 소의경전 ② 국가대표 ③ 화양연화 ④ 공자 ⑤ 장희빈 ⑥ 잠복 ⑦ 법구경 ⑧ 겨자 ⑨ 법구경 ⑩ 리어카 ⑪ 기사 ⑫ 회사 ⑬ 네덜란드 ⑭ 라디오 ⑮ 애니메이션 ⑯ 윤칠기삼	① 소상공인 ㉑ 전화위복 ㉒ 국화 ㉓ 연기법 ㉔ 장경각 ㉕ 빈대 ㉖ 잠자리 ㉗ 주기 ㉘ 카네이션 ㉙ 계란 ㉚ 사분오열 ㉛ 희노애락 ㉜ 과메기 ㉝ 드라이기

독자 후기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법회 일정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상반기 49일	양력
	오전 10시	진호국가불공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양력
신년불공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5월 28일 ~ 7월 15일
종조탄신일	양력 1월 29일	해탈절 (우란절)	양력 7월 15일
종조멸도절	양력 9월 8일	창교절	양력 12월 24일

불교총지중 연중 불사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중은 창종 이래 진호국가·호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호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국태민안·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호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호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옴홍야호사'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불교총지중 사원 일람

사원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3452-7485
서울경인교구			
관성사	03166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종량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법황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혜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증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대경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향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메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59, 201호(대영아르피나)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사랑길 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일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7길 7-3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망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독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르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르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공덕성 김윤서 김종철 남달리 박보경 법 공
손경옥 송서아 송영근 송하나 송호영 안한수
오승헌 오채원 오현준 이영희 이인성 이태남
이혜성 자선화 정법계 정재봉 정화연 총지화
한철수



대학시절, 힘든 마음에
법당을 찾은 일이 있었습니다.
난제 속에서 방황할 때,
저도 모르게 발길은 이미
부처님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법당에 머물다가
곧이어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에서
뜻밖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넌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어머니의 말씀에 어지럽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디를 가던지 주인이 되면
그곳이 어디든 참된 곳이라는
선어록입니다.

진정한 해답을 얻고 싶다면
삶의 주인공인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하나씩 어두운 면을 걷어낸 후
본래의 자리에서 감춰져 있던
명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월호



진리는 자기 마음 가운데에 있다
마음을 살피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는가?

- 환당 대종사 법어록 중에서 -